다윗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사무엘상 17:1~58)

31.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다윗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언젠가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여덟 페이지짜리 컬러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딱 두 단어만 나옵니다. 첫째 페이지에 '노티카'라는 브랜드 명이 나오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한 번 '노티카'라는 브랜드명이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비싼 뉴욕타임스 매거진 광고에 '노티카'라는 두 번의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았는데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말에서 '미니멀(minimal)'은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히 작은'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주의(ism)'라는 뜻이 붙어서 '최소한주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콘셉트로서 이것이 건축에 나타나면 거실에 아무것도 없이 소파와 탁자 그리고 탁자 밑에 양탄자가 있고 극히 간결한 디자인의 오디오나 TV가 놓여있을 뿐인데 간결함과 단순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기본적인 사

상의 근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미학적 원칙입니다. 요새 옷차림을 봐도 과도한 장식을 피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육체의 실루엣이 들어나도록 입는데 미니멀리즘 패션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서 ‘미니멀리즘 라이프’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의 원조가 성서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효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고 한 것은 교리 공부를 할 때에 십자가만 알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신앙인데 그 삶을 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십자만 알기로 결정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하나로 삶의 모든 문제를 대체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단순하고 간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의 키워드는 단순함, 간결함, 반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는 전제로 볼 때에, 십자가 하나로 사는 기독교인의 삶보다 미니멀리즘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사는 것은 내 마음을 끌어가는 세상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크게 보고 진지하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 죽음으로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점차 뚜렷하고 크게 보이면서 내 앞에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미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을 작게 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일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통해서 하나님의 맥시멀리즘(maximalism)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극대화 되도록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 작은 미니어처로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어마어마한 삶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이 십자가 하나로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은 거의 저절로 살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편의 감동적인 단편 소설과 같은 장입니다. 무려 58절까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작고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던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신장이 여섯 규빗 한 뼘(283cm)이고 첨단의 무기를 가졌고 훈련된 전사이고 전쟁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전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러한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의 여덟 형제 가운데 셋이 전장에 나갔기 때문에 네 번째 형이 19살이라고 치면 막내였던 다윗은 15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살 이

상이라도 다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변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5~20살 미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드는 자로서 사울 앞에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서 전혀 상상이 불가능한 모습이 나타났기에 '내 앞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이 대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등의 이유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장한 용사인 골리앗을 상관하지 않고 다만 그를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할례가 바로 다윗이 사람을 보는 단 하나의 관점이었고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미니멀리즘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인 원칙이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할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목동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이 하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양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 가면 하나님을 보던 시점에서 곰은 쥐꼬리만 하게 보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맥시멀리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쟁터에 오자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겼던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쥐꼬리만 하게 보였는데 이것이 신앙적 미니멀리즘의 결과입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과 투구와 갑옷과 용사됨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데, 이 어린 목동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 사울 왕 앞으로 가져올 때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거침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거침없는 삶이 바로 신앙의 미니멀리즘의 결과이고, 신앙의 미니멀리즘은 하나님 맥시멀리즘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회사나 가정이나 사장님이나 친구들 앞이 아닌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활화는 육체적 물리적으로 내 눈 앞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므로 모든 세상 문제가 작게 보이고 거침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군사력과 행정력으로도 기독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맥시멀리즘이 나타날 때 땅굴에서 250년을 살아도 그게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평생을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더라도 대단치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사문제, 결혼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승진문제 같은 큰 일이 많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마주하는 문제들이 좁쌀만큼 작게 보이기 전까지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손을 대게 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손을 대면 댈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작게 보일 때까지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잘되든 못되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닌 아버지 앞으로 가기를 기도하면, 희미하던 아버지가 뚜렷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를 압도하던 골리앗 같던 문제들이 다윗에게서처럼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 때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손을 댈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손을 대면 반드시 얽히고설켜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는 십자가 하나로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죽는 이유는 죽은 척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선민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야 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유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유전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할례의 의미를 믿고 생활화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도 할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 문제들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며 다윗처럼 거침없이 나가지 못하는데 할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더 먼저보고 크게 보는 것이 할례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세상은 십자가 생활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문제, 승진문제, 결혼문제, 직장문제, 자식문제,

부부문제 등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대처하며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고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고 크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 맥시멀리즘이 이루어지면 골리앗 같은 문제는 티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문제는 함정이 됩니다.
십자가 미니멀리즘을 통해 하나님 맥시멀리즘을 추구함으로서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현장을 일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제2 제3의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